

# 공직문화 뿌리내리기 '안간힘'

### 전북도, 적극 협업·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감사 면책

전북도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전북도 적극협업·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공직자들이 기존 관행을 벗어나 도민의 삶의 관점에서 적극·능동적으로 협업하며 일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북도 각 실·국, 직속기관과 도 소속 공공기관에서 총 42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류평가를 거쳐 최종 6건의 경진대회 진출 대상을 확정했다.

이날 본선에 올라 발표한 사례는 기관·부서 간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 적극협업 3건과 소극적인 업무를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3건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적극협업 분야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과학교육기반 리빙랩 협력체계 운영을 통한 농촌 문제해결, 환경보전과는 △전북혁신도시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악취 해소 총력,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은 △도 출연기관 최초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해 발표했으며, 적극행정 분야는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서 △재난현장 다수환자 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농업기술원은 △부처융합형 신산업육성 규제혁신주

진, 세정과는 △만파의 눈물, 세계지원 마케팅으로 지역행복 살린다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우수사례 선발에 있어 교수, 언론인, 도민 등 각계각층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과 현장에 참여한 일반인 40명의 전자투표 방식의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반영하는 심사도 진행되었다.

이번 경진대회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협업하는 공직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감사면책 등의 도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대도약을 이루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27일, 김제시 순동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전라북도 선도기업 (쥬참고을을 방문하여 생산시설 견학과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도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토록”

### 전북도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청취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27일, 김제시 순동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전라북도 선도기업 (쥬참고을을 방문하여 생산시설 견학과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는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심축인 선도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감도를 높이고 자 마련한 자리로, 매출성장 및 고용 창출, 신기술 개발 등 우수기업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하는 물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첫 번째로 (쥬참고을을 찾게 된 것이다.

(쥬참고을은 참가팀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원장, 고추장, 간장 등종합식

품 제조회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업체로, 2000년 12월 경기도 일산에서 시작한 후 2003년 김제로 이전하여 자본금 증자와 설비투자, 품질개선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에는 베트남에도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이곳에서 장류(원장, 고추장)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쥬참고을을 만의 특화된 제조공정을 시찰했고, 기업체 관계자 및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쥬참고을의 김운권 대표는 "2016년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 장류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냉각시스템 공정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자금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최고의 품질로 우리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제조현장을 둘러보니 지역기업의 미래가 밝아진 것 같다"면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도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일류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가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사업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010년 원 전라북도에서 자체 발굴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총 189개사가 선도기업에 선정되어 5년 지정기간 동안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출 증가 및 고용창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기업지원 사업이다.

/김진성 기자

## LX, 공간정보 청년 일자리창출 나서

### 내달부터 전문가양성과정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 국토정보교육원(원장 김진수)이 올해로 6년 째 공간정보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LX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5개월간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공간정보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 관련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정원은 30명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오픈소스를 활용한 GIS, JAVA, Node, API 등 기본 프로그래밍을 토대로 실무교육과 팀별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11월 28일 프로젝트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전 과정이 마무리되며, 교육수로 후에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 협약기업에 우선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김영태 기자

김진수 교육원장은 "교육과정이 공간정보 분야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공사는 관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간정보아카데미는 그간 해당과정을 통해 매년 관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개최... 세계요트인들 불안 격포항으로 총출동

'제5회 새만금 국제요트대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부안격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15개국 350여명의 세일러가 참가해 나흘 간 열전에 돌입했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는 국내외 세일러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5회째를 맞았다.

특히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부안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요트대회로 발전하게 됐으며, 부안격포항은 해양스포츠와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급부상 하고 있다.

권익현(부안군수) 새만금컵 조직위원장은 대회참관을 온 요트가족과 격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범선

을 초청했다. 관계자는 "주말을 맞아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대회장을 찾은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로 범선 요트와 크루저요트를 무료로 승선시켜 해상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 할 수 있게 했으며, 특설무대에서는 29일 저녁 국제요트인의 밤 행사와 가수 공연이 열려 참가선수단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펼쳐진다.

체형심청은 현장접수(격포항 남쪽 방파제 부안변산 요트 마리나 입구)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요트협회(063-584-1005)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디지털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 꿈꾼다

### LX, 42주년 창사기념식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가 창사 42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LX는 7월 1일 창사 42주년을 앞두고 27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사기념

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유공기관과 유공자 표창 수여, 최창학 사장의 기념사와 비상임이사의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기관 표창은 경영대상 종합 부문에 대전충남본부, 핵심사업 부문에 서울지역본부, 미래성장부문에 경기지역본부, 고객부문에 충북지역본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공적, 경영성과창출, 청렴, 일자리 창출 등 LX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은 각각 표창을 수여받았다.

최창학 사장은 "LX는 국토정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다"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디지털 혁신을 이룬다면 글로벌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으로서 LX에 대한 신뢰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